



## 국내 낙농업계의 현실

권 태 효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UR협상과 '97년도까지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여야 하는 현시점에서 수입개방 압력은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낙농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아주 어려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낙농농가와 정부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대학에서 축산학을 공부하고 정책입안의 구성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지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이 나라 낙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느낀 소견이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낙농업의 역사가 비록 짧다고 하나 그동안 생각보다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낙농업계의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방적 요구와 부분적인 잘못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판만 하는것은 필자에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유생산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행위, 즉 유업체들간의 점유쟁탈 또는 낙농농가의 집단적인 점유선 이동 등의 행위들이 불과 얼마전에 겪었던 전례없는 낙농불황을 또다시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낙농농가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낙농농가가 낙농업에 전념하게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어 해결하여야 하나 모든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89년 유대인상에 따른 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등의 우유소비둔화 요인에 따라 '89년 4월의 분유재고 8.8천톤이 시기적으로 우유성수기에 접어들어 분유재고가 감소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정 분유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을 '90년도에 26억원에서 48억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유도하였고, 유제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대용유용 전지분유 2천톤 공급, 분유 1.6천여톤을 수매하는등 총 63억원의 보조를 하면서 분유재고를 줄여나가는 한편 유업체에 대해 대농가 유대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원유대자금 182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노력과 낙농농가의 자발적인 생산조절 및 저능력우 도태등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어 '90년 3월 22천톤의 분유재

고를 기점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8월에는 11천톤에 이르러 오랫동안의 불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분유재고 누적을 이유로한 유업체의 집유기피, 유대체불, 유대를 분유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낙농농가의 불이익이 따랐으며 일부 낙농농가는 이에 대한 반발로 원유를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는 일부 가슴아픈 현상들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전체 낙농농가들은 분유체화의 긴 세월동안 낙농산업의 안정과 미래를 위하여 참고인내하는 자기 희생적인 노력을 하여 오는것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결과로 분유체화는 생각보다 빠른시기에 해소가 되었으나 '90년 7~8월의 기상이변에 따른 30℃가 넘는 혹서로 전체적인 우유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우유를 사용하는 청량음료와 치즈 및 호상발효유등의 유제품 소비가 50%이상 신장됨에 따라 분유재고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분유재고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식품업계 및 유업체에서는 분유의 가수요 현상까지 발생하여 분유소비는 '89년 8월에서 10월까지 5.6천톤이 소비되는데 비하여 '90년도 같은 기간에는 11.4천톤이나 되는 많은 물량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분유재고 격감에 따라 분유확보가 어려워진 식품업계는 10월에 분유를 비행기로라도 급히 수입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분유재고량 및 분유수입이 낙농농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분유수입을 거론할 시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수급조절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급불균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유의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유업체 및 낙농농가의 집유선 무단 이동을 방지토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유쟁탈, 집유선 무단이탈등의 집유질서문란행위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유질서문란 행위가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발생을 일으킬때 올수 있는 무질서, 유제품가격의 인상, 서로의 불신감만 깊어질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장은 일방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나 향후 장기적인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집유선 무단이동 금지조치에 대해 불가피하게 1월15일 조치로서 다시한번 집유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식생활 향상과 새로운 유제품 개발 및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을 고려하고, 분유의 장기적인 부족현상 발생시에는 분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분유를 타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위민한 낙농산업은 있을수 없다는 판단아래 '91년 우유부족분 분유 8천톤을 향후 수급동향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같은 분유수입 결정이 우유수급동향상 국내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물량으로 우리 낙농농가에 생산위축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 확신하는 바 입니다.

이렇듯 분유체화 및 우유부족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유 및 유제품이 쌀등과 같이 필수적인 식품과 달라 경기변동이나 그밖의 기온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소비의 증감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사실상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외적 요인등으로 향후 수급예측이 어려운 반면, 식품특성상 6개월~1년이상의 보관·저장이 곤란하여 장기간 비축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편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수 있는 제품도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낙농현실은 어느 일방의 잘못은 아닌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분유체화시 보상금까지 주고서 권장한 과다한 젖소도태의 정책으로 인해 우유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일부에서 주장을 하나 이는 분유체화시 생산자단체나 유업체에서 도태 보상금 지급으로 젖소도태를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부득이 1개월간 불과 968두에 150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는데, 마치 이 968두가 오늘의 우유부족 현상의 주범인양 젖소도태보상금 지급에 대해 정부만을 매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취한 행동을 한번 짚돌이 쳐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물론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단체직원들도 다시한번 생각을 기다들을 시기인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지금부터 우리 낙농관련인 모두는 식량산업으로서 우유의 중요성을 가지고 낙농업이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누군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거나, 누군가에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직면한 현실에 대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낙농농가와 정부간에 서로 신뢰하며 함께 매진한다면 향후 닥쳐올 어떠한 난관에 대하여도 우리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모두는 자신있게 극복해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우리 낙농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집유선

이동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지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원유증산운동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볼때 낙농산업의 발전을 확신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낙농농가들이 흔들리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여 생산비 절감등의 노력으로 수입개방 압력과 농가소득 향상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발을 낙농산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보람보다는 정책개발외에 상식선을 벗어난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처리에 모든 시간을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며, 다시한번 필자는 낙농산업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할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